부탁이 있습니다.

안녕하세요? 형제 자매님.

박송월 자매입니다.

오늘 제가 임채만 형제님이 학회 차 방글라데시에 2월 13-15일 까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형제님과 통화도 하였습니다. 이런 일이 다 있네요

방글라데시에서 형제님을 뵐 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였는데… 우선 참 기뻤습니다.

여기에서 뵐 수 있나 는 사실이 형제님과 통화 중에 제가 필요 한 게 있으면 말하고 가져다 주시겠다고 하셔서 감사하다고 하고 전호를 끊고 생각하니 탐심이 생기네요 .ㅋ ㅋ

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지만 제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.

교회가 해주셨으면 합니다.

총 5가지 입니다.

첫번째 밥솥 뚜껑 안에 고무 바킹 을 구해 주세요 제가 태워서 바킹이 조금 줄어들었는지 밥이 잘 안 될 때 가 있습니다. 제가 한국에서 가져 온 것 이어서 마트에 팔 것 같습니다.

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보시고 구해주셔요.

두번째 실내화입니다. 제가 길거리 노점상에서 3개4개에 만원인지 오천원인지 확실하지는 않고요

이게 면이어서 느낌이 좋아요. 참고로 미금역 근처에서 샀던 것 같아요. 사진을 보내드립니다.

세번째 카누 커피를 부탁 드립니다. 올때 선물을 받았는데 부족해서….. 방글라데시에서는 구하기가 그래요 물론 없어도 살지요 그러나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아요.

네번째 수정테이프를 5개 보내주세요. 액체말고 테잎으로요 글씨지우는 용도입니다.

방글라데시에는 없어요,

마지막으로 배추김치를 조금 보내주셨으면 해요.그러나 가져오시기가 그러면 안 보내주셔도 되요.

위의 4가지만 보내주셔도 넘 감사하지요.

주안에서 형제 자매님 많이 사랑하고 감사 드립니다.

다시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세요. 내년에 뵙겠습니다.

|  |
| --- |
| EMB000010386825 |
| EMB000010386824 |